

여수시, '불황 화학산업' 재도약 나선다

정부에 '이차전지 화학산업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 신청 4조원 규모 연구개발·민간투자 등 '글로벌 경쟁력' 강화

여수시와 전라도가 화학산업 부활을 위해 특화단지 조성을 추진한다.

28일 여수시에 따르면 최근 전남도와 함께 산업통상부가 추진하는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산업 특화단지' 공모에 '이차전지용 화학산업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을 공동 신청했다.

이번 신청은 여수국가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올촌 제1일반산업단지와 광양 세풍산업단지를 연계해 추진되며, 이차전지용 핵심 화학소재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와 공급망 안정, 지역 주력산업의 고부가가

치화를 목표로 한다.

특히 석유화학 산업 구조 전환 흐름에 대응해 정부의 '석유화학산업 리밸런싱(K-리밸런싱)' 정책을 반영, 특화단지 조성 및 운영 전략을 마련했다.

고기능성 바인더, 카본블랙, 패키징 소재 등 이차전지 핵심 소재는 현재 해외 의존도가 높은 상황으로, 시는 국산화와 공급망 안정화를 통해 'K-배터리 전주기 밸류체인' 완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육성계획에는 금호석유화학 등 영

거기업 3개사를 비롯해 수유·협력기업 39개사가 참여해 총 2조3992억원 규모의 민간투자를 계획했다. 이와 함께 연구개발(R&D), 기반 구축, 인력 양성, 기업 지원 등을 포함해 총 2조6333억원 규모의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또 여수국가산업단지의 기존 석유화학 인프라와 높은 산업 집적도를 기반으로 원료부터 중간재, 수요처까지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이차전지용 핵심 화학소재 집적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여수시 관계자는 "이번 특화단지 신청은 지역 석유화학 산업을 첨단 이차전지 소재 산업으로 고도화하는 중요한 전환점이다"며 "전남도와 협력을 강화해 지정 유치와 산업 경쟁력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신청한 소부장 특화단지는 5~6월 산업부 검토와 평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7월 중 소부장 경쟁력강화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여수=송원근 기자 swg3318@gwangnam.co.kr

화순 '빛나는 아이들 모여라' 내달 5일 어린이날 축제 개최

화순군은 5월 5일 오후 4시부터 8시까지 꽃길길 음악분수대에서 어린이날 특별 행사 '빛나는 아이들 모여라'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공연과 체험, 먹거리가 어우러진 가족 참여형 축제로, 어린이들에게 특별한 추억을 선사할 예정이다.

행사의 하이라이트인 공연 프로그램은 오후 5시부터 1시간 동안 버블쇼, 별문쇼, 매직쇼가 이어지며 아이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는다.

음악분수 공연은 오후 4시와 오후 8시, 두 차례 운영되며, 오후 7시에는 어린이날 맞춤형 버스킹 공연이 펼쳐져 축제 분위기를 한층 끌어올릴 예정이다.

아이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도 풍성하게 마련된다. 행사장에서는 야외 버블체험과 페이스페인팅이 진행되며, 탈인형 퍼레이드가 더해져 즐거움을 선사한다. 특히 야광 소품을 착용하고 SNS에 행사 사진을 인증한 방문객에게는 'LED 마라카스 꾸미기'와 '야광 팔찌 만들기' 키트를 제공해 특별한 체험 기회를 마련한다. 화순=구영규 기자 vip3355@

순천, 임차인 보호 체계 구축 88개 단지 38억5000만원 지원

순천시가 임대아파트 임차인 보호와 노후 공동주택 정비에 병행하며 시민 체감형 주거환경 개선에 속도를 내고 있다.

28일 순천시에 따르면 임대사업자 부도 등에 따른 피해를 줄이기 위해 임대아파트 임차인 보호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선제 대응에 나섰다.

일부 단지에서 소유권 미이전과 근저당 미말소, 분양전환 과정의 법령 위반 등 제산권 침해 사례가 발생하자 상담회 개최와 금융기관 협의를 통해 대출기간 연장 등 지원을 추진했다.

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협력해 약 40억원 규모의 보증금 피해 구제(166세대)를 이끌어냈다. 개별 사안에는 행정조치와 과태료 부과, 수사·감사 연계 등 후속 조치도 병행하고 있다.

공동주택 정비 지원도 확대됐다. 관련 예산은 2022년 13억3000만원에서 2026년 38억5000만원으로 늘었고, 지원 기준도 '중공 후 3년 경과'에서 '2년 경과'로 완화됐다. 올해는 중공 10년 이상 공동주택 88개 단지를 대상으로 육상 방수와 외벽 도장, 승강기 및 배관 정비 등 생활밀착형 시설 개선을 추진 중이다.

순천=박철식 기자 2556pk@gwangnam.co.kr

고흥 로컬푸드직매장 매출액 1억 돌파

개장 한 달 만에 해산물 등 105개 품목 판매

고흥군은 지역 농업인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위해 최근 정식 개장한 고흥군 로컬푸드 직매장이 개장 약 한 달 만에 누적 매출액 1억원을 돌파했다.

이번 성과는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의 유통 단계를 최소화하고, 당일 수확, 당일 판매 원칙을 철저히 지킨 신선 농산물 중심의 운영 전략이 소비자의 신뢰를 얻은 결과로 분석된다.

현재 고흥군 로컬푸드 직매장에서는 계절 채소와 과일, 지역 해산물, 가공식품 등 105개 품목이 판매되고 있다. 특히 썸채소·봄나물 할인 행사 등 시기별 프로모션이 소비자의 발길을 이끌며

매출 상승의 견인차 역할을 했다.

또한 출하 품목은 개장 초기 88개에서 현재 105개로 꾸준히 확대되고 있으며, 소규모 영세농과 고령농에게 안정적인 수익원을 제공하며 지역 상생 모델로 확고히 자리 잡고 있다.

고흥군 관계자는 "군을 찾는 관광객과 군민의 뜨거운 성원 덕분에 빠르게 매출 1억원을 달성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출하 품목을 더욱 다양화하고 철저한 품질 관리를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가 만족하는 상생의 공간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흥=김두성 기자 kds08117@



지리산에 찾아온 봄 지리산 노고단 일대에 진달래가 만개해 봄의 절정을 알리고 있다. 등산객이 진달래를 보며 봄 분위기를 만끽하고 있다. 사진제공=구례군청

광양, 재첩 미식 관광지로 부상

아고다 리포트, 제철 음식 중심 숙소 검색량 증가

광양시는 봄철 제철 음식을 찾는 여행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미식 관광지로 떠오르고 있다.



28일 여행 플랫폼 아고다의 '2026 트래블 아웃 리포트'에 따르면 광양은 재첩을 중심으로 한 미식 콘텐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숙소 검색량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28% 증가해 전국 주요 제철 미식 여행지 가운데 세 번째로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섬진강에서 자란 재첩은 광양을 대표하는 향토 식재료로, 국·회무침·전 등 다양

한 요리에 활용되며 전통 채취 방식인 '섬진강 재첩잡이 손틀어업'은 유엔 식량농업기구(FAO)가 인정한 세계 중요농업유산(GIAHS)으로 등재돼 있다.

광양시 관계자는 "지역 식재료를 활용한 미식 관광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며 "재첩을 비롯해 광양불고기, 광양닭숯불구이, 빛굴, 전어 등 다양한 지역 먹거리를 기반으로 관광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광양=김귀진 기자 ikjin@

곡성, 고향사랑기부 민간플랫폼 '웰로' 입점

5월 한달간 인기 답례품 증량 이벤트

곡성군은 고향사랑기부 활성화와 기부 참여 장려 확대를 위해 민간플랫폼 '웰로'(<https://www.welfarehello.com/donation>)를 도입·운영한다.

이번 웰로 입점 답례품은 총 11개 업체, 12종으로 구성됐으며, 기부자 선호도가 높은 인기 품목을 중심으로 지역 특산물의 경쟁력을 고려해 선정됐다.

대표 상품으로는 곡성심장상표, 곡성사랑 플랫폼, 백세미 누룽지 선물 세

트, 한돈 귀우삼겹살·목살, 국내산 시골 김치 세트, 밤야면미, ABC 주스, 민물장어 등이 포함됐다.

군은 이번 기부 플랫폼 확대와 함께 5월 가정의 달과 '제16회 곡성세계재미축제' 성공 개최를 위한 특별 이벤트도 진행한다.

5월 한 달간 인기 답례품을 증량 제공하고, 기간 내 기부자 중 무작위 100명을 추첨해 GS25 1만원권 모바일 상품권을 증정하는 등 다양한 혜택으로 기부 참여

를 독려할 예정이다.

곡성군 관계자는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확대를 통해 지역 문제 해결에 필요한 자원을 확보하고, 답례품 제공업체의 매출 증대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다"며 "특히 올해를 곡성 고향사랑기부제 도약의 해로 삼아, 기부 문화를 통해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곡성군은 고향사랑기부 행정안전부 플랫폼 '고향사랑e음'과 함께 민간플랫폼 '웰로'를 운영하고 있다.

곡성=김유빈 기자 hnnews1@gwangnam.co.kr

초대석



백혜연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민이 사법부 신뢰할 때까지 개혁 끈 놓지 않겠다"

화제의 인물



이동원
전국대학생투자동아리연합회 회장
지방은 왜 불리한가 전남대 학생의 도전

전남농업이야기



최진실
전남도농업기술원 식량작물연구소 연구사
"두류 신 품종 육성으로 국산화 앞당기겠다"

남도 예술인



이관우 기타리스트
"기타 선율로 내 이야기 연주하는 뮤지션 되고 싶다"

2026.05 vol. 156

세상과 함께, 문화와 함께 광남일보 매거진

전라도인

구독문의: 062)370-7080 광고문의: 062)370-7070

전남의 보물섬



여수 금오도
황금거북 등에 핀 벵랑길
'봉산'의 신비 벗다

5월 가정의 달



'생애 첫 공연' 확대,
광주에서 영유아 공연은
'관람 넘어 경험으로'
우리 아기 상상력 쑥쑥

커버스토리

박중환

남도의병역사박물관장

"남도의병역사박물관,
의병정신 현재로 있는
살아있는 역사공간"

전시·교육·체험 아우르는 대표 의병 전문 박물관 지향
SI프로그램 확대...지역과 함께하는 문화·관광 거점